

한국문화교류 소식

39호 2020년 03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나무와 숲, 그리고 나무꾼의 삶 이야기



정 헌 관

이학박사, (전)산림청 중부육종장(育種場長)

왜 나무꾼이 되었는지?

봄이라고는 하지만 부실하게 입은 옷 때문에 아직 아침저녁으로 아랫도리가 썰렁하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1년 어느 이른 봄날로 기억 된다.

며칠 전 짜리문 밖 울타리 옆에 엄마와 같이 해바라기 씨앗 몇 알을 흙에 묻어 놓았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도저히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오늘도 어둑어둑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잠자리에서 살그머니 일어난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해바라

알 립 니 다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 총회 및 창립 기념 포럼' 행사를 잠정적으로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도 부득이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나아질 때 '창립 10주년 기념 포럼'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 씨앗을 묻어 놓은 울타리 언저리를 몇 날 쯤 도둑 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기어가서 살펴본다. 마침 어제 밤에 봄비가 흠뻑 내린 덕분에 해바라기는 마침내 씨앗 껍데기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축축한 흙을 헤치고 힘차게 솟아올라 오는 것이 보였다.

그걸 바라보는 네 살배기 어린아이 머릿속에서는 무한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다고나 할까?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의 커다란 충격은 칠십을 훌쩍 넘겨버린 지금도 더욱 뚜렷하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아침 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것은 아마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해바라기는 두 개의 떡잎이 나오고부터는 날마다 커기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드디어 노란 꽃이 피고 굼직한 줄기에는 말뚝미가 와서 울기도하고, 친구들 하고 매일 거기 매달려 노는 좋은 놀이터가 되었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걷이가 다 끝나는 서리 내리는 겨울의 초입이 되었다. 하루는 뒷동산에서 동무들과 신나게 뛰어 놀다가 해거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어른들이 보름달보다 더 큰 해바라기를 싹둑 잘라서 초가집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닌가. 잘려버린 해바라기를 생각하며 네 살배기 나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몇 날 밤을 소리 없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해 초겨울 우리 동네 뒷산 골짜기에서, 왜 그러지는 몰랐지만, 음말 삼규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께서 숨어 지내시던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한국 전쟁 때 보급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낮에는 일 하시고 어둑어둑해지면 산속에 숨어 지내셨던 것 같다. 엄마 심부름으로 가끔 누나와 같이 사람들 몰래 아버지께 밥을 가져다 드리곤 했다. 그때 뒷산 모퉁이를 한참 돌아가면 아름답리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아, 그렇지. 저 소나무는 해바라기처럼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잘려지지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걸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고, 아마도 그때 어렴풋이 나는 나무와 평생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다.

우리 동네는 충청도 산골 중에 산골이었고 초등학교까지는 삼십 리나 될 정도여서 대부분 아이들이 아홉 살이 돼야 학교에 입학했었다. 해 뜨기 전에 학교 갔다가 캄캄할 때 집에 돌아 왔고, 중고등학교도 지방 학교지만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아마 법대나 공대 아니면 상대에 들어가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게 될 거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인정 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등학교 삼학년 입학원서 쓰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나는 농대에 가겠다고 하니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결국 농대 임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네 살 때 소망했던 나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무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무를 공부하며, 연구하고, 나무를 심으며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관리들로부터 갖은 고난을 겪은 터라, 날 낳고는 우리 아들 법관되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내 이름을 나라鄭 憲 憲 벼슬官이라 지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불효자라 할 수 있겠지만,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綠化)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떠안은 나무꾼으로서 살아온 흔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그리 섭섭해 하지 않으리라 위안한다. 그리고 선녀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그들 나뭇대로의 보람된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나무꾼으로서 이보다 더 욕심 낼 수는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를 자르는 나무꾼은 선녀가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 갈 것을 우려해 아이 셋 나를 때까지 날개옷 감추고 마음 졸이며 살았지만, 나 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꾼은 애들 둘만 낳고 날개옷 감추지 않아도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선녀(?), 김태열 권사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2년 전에는 호주에 사는 손주들이 엄마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서 한 해 동안 초등학교를 다녔다.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배가 아프다니까 열한 살 짜리 손녀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주손이 약

손이다 손주손이 약손이다” 라면서 내 아픈 배를 문질러 준다. 행복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자…… 그리고 지금껏 내가 심은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면서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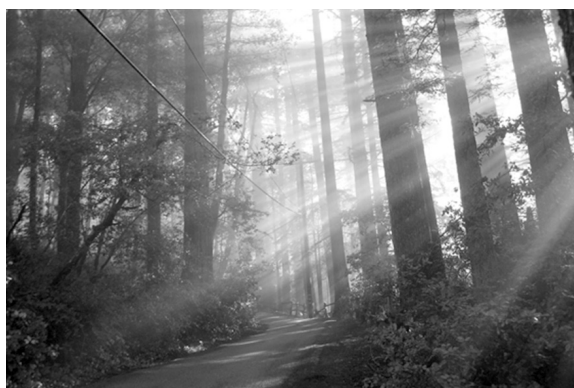
나무와 숲은?

지구가 형성되면서 오랜 세월과 수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지금의 지구촌이 되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비롯한 세계 5대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나무가 짙어찬 숲이었다. 그 속에서 인류의 문명도 문화도 꽃 피었으나 숲이 사라지고 나서 아울러 그 문명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게 되지 않았던가.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나무들이 모여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숲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살아있는 못 생명체들의 쉼터.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공기나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숲 또한 떠나서는 살수 없는 곳이다. 인류가 자신들의 기원을 그토록 알고 싶어 했었는데, 그 원천이 나무와 숲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원시인류는 잎이 피어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현상으로,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어 나무와 숲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는 온갖 신들이 산다고 상상했고, 나아가 이 우주가 그곳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인류문명 발달 역사와 더불어 나무와 숲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그들 삶의 모든 부분과 뒤섞일 수밖에 없었으며, 인간의 자각을 발달시키는 막중한 역할도 대부분 나무와 숲이 맡았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무와 숲에 대한 숭배와 그 상징적 의미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 게르만 민족의 가장 오래된 성지는 숲이었으며, 그것은 일찍부터 나무와 숲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들 문화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무와 숲을 더욱 잘 지켜오고 있다.

대자연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며, 그곳의 생명들



아름다운 숲의 광경

대부분은 숲의 품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과학기술의 발달이 넘치는 현대문명 속에서 조금만 더 방관 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숲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숭배해 온 이들의 정신적 숨결 또한 느낄 수 없게 될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 그 안식처를 떠나서 살아야 했고, 그 안식처를 떠나 살게 된 사람들은 항상 그곳의 편안함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나무와 숲을 아끼면서 그들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은 그들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게 되리라고 본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세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와 같이 나무와 숲은 인류의 생존과 번성에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와 숲을 그냥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를 약 천만 종으로 보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볼 수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 식물자원이다. 항상 우리 곁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나, 자칫 우리의 착오에 의해서 언제라도 소멸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나무꾼에게도 노벨평화상이 돌

아갔다. 아프리카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Wangari Muta Maathai) 여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평생 아프리카 전역에 삼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환경운동을 했다. 오슬로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나는 아프리카 전역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왔다”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 나무 심고 환경운동하는 것이 평화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인류 평화의 개념도 더 높은 차원에서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닥쳐오는 기후변화 문제, 골치아픈 미세먼지 문제 등 나무와 숲의 물질적 가치 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 면적의 0.2퍼센트쯤 되는



일본 야쿠시마 섬의 조몬스기 삼나무

데, 면적에 비해서 식물 자원의 종류가 8배쯤 많다. 즉, 식물의 종류는 4500종, 그중에서 나무의 종류는 1200종, 이런 다양한 자원은 다가오는 5차, 6차 산업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생물자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 시대

즉, 산업화시대의 중요자원은 틀림없이 광물자원이었지만 인간의 마지막 소망인 무병장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생물자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나무와 숲의 생명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단테는 “신이 만든 위대한 작품 중에서 산과 거기에 있는 나무와 숲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노래했다. 대자연은 물질문명에 지치고 척박한 삶에 권태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세탁하고, 영혼의 목욕을 통해서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 경제적 풍요를 누릴수록 인간은 단순한 생존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더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대자연 속의 나무와 숲이 틀림없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심고 가꾼 나무들

여러 해 전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서 거의 재벌급에 속하는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국토 녹화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로 인해서 무척 가깝게 지낸 적이 있었다. 하루는 그분께서 자기 가문의 아주 귀한 보물을 내게 보여 주겠다고 하시길래 무척 궁금했었는데, 몇 시간을 자동차로 숲속에 들어가서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니고 7대에 걸쳐 만들어진 “가문의 숲”이었다.

1대를 30년으로 본다면 7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는 약 210년생, 6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는 180년생.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심은 작은 나무까지 합해 엄청난 면적의 독일 가문비나무 인공숲인 그 숲을 직접 본 것이다. 머지않아 자기 손주가 7대 할아버지가 심은 약 210년 된 나무를 베어 쓰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을 거란다. 아! 게르만족이 스스로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 아닐까? 독일의 그 위대한 숲 흑림(黑林)…… 그것들이 적어도 이백 년 걸려서 만들어진 숲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강원도 지역에 안타깝게도 대형 산불이 났었다. 그때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산은 흙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군사정권 시절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산불이 난 거요” 라고…… 세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우리나라의 험벗었던 산을 단기간에 녹화한 것을 극찬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국토를 녹화해서 숲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숭고한 지도자의 마음이었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룬 아주 귀중한 산물이었다. 나는 연구직 산림공무원으로 38년을 봉직하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녀 보았지만 숲

이 빈약한 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신마저 메마르고 여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내가 정년퇴직한 지가 벌써 14년째다. 독일의 “가문의 숲”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는, 그걸 흉내 내서 나도 작지만 여건에 맞는 가문의 숲을 만들기 시작했다. 퇴직하고부터 곧바로 시작 했으니 일찍 심은 나무는 벌써 나무높이가 10미터가 넘게 되었다. 금년 봄에 심은 나무까지 13만 평, 나무 그루수로는 약 8만 본, 내 경제적 능력은 이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대략 성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주고 배출한 것을 정화 하는 데 적어도 아름다운 나무 22그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를 탄다면 그것의 10배쯤, 그러니까 한 사람 당 220그루는 심어야 자동차 타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적어도 나는 8만 본의 나무는 심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한 것이다.

나는 몸무게가 80킬로그램쯤 된다. 어느 학자의 이야기로는 보통 사람의 순수한 물질적 가치가 겨우 1500원쯤 된단다. 나는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을 약속 했으니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물질적 가치는 좀 더 나가겠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백 년을 살지만, 흙으로 돌아간 후에 그 사람의 남겨진 흔적은 정말로 오래갈 수밖에 없다.

나무는 목재가치의 33배쯤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한다. 내가 심은 나무가 5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손주의 소득이 되겠지만, 또한 백만 원의 33배만큼에 해당하는 가치를 온 세상의 동물들에게 공짜로 준 것이 된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 전 일본 야쿠시마 섬에서 7200년 된 조몬스기(縄文杉) 삼나무를 10시간 산행 끝에 직접 만져 보게 되었다. 일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우리 240대 선조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에 살아 숨쉬던 생명체라 생각하니 참으로 경이로웠다. 만약 내가 그 나무를 심었다면, 나는 백년도 안돼서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내가 심은 그 나무는 72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그 하루를 산에서 보내려고 한다. 허리를 굽혀 흙을 파고 나무를 심어서 내가 떠나간 뒤에도 그것들이 나보다 오래 오래 살아 있으리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새들과 온갖 동물들도 또한 나처럼 그 나무에 바랄 것이다. 어쩌면 나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흙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진실했던 때를 기억하는 아마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 그 어느 날보다 후회하지 않는……

□□□□□□□□

2020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0년, 한국문화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성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김호일,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기연, 박명수, 박미나, 박미화, 박신재,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재)아시아발전재단, (주)동우들,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디순,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45,140,000원

행복이 꽃피는 한글학교



김 한 권

곤명한글학교 교장, 재중국한글학교협의회 회장

곤명한글학교는 1999년 처음 3~4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22년의 역사를 가진 한글학교입니다. 곤명은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운남성의 성도(城都)입니다. 운남성의 특징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26개의 소수민족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석림과 리장 고성, 호도협 등의 천연 관광자원과 히말라야 자락의 많은 설산으로 유명합니다.

곤명 한인사회는 화훼농장과 식당, 옷 가게 등의 소상공인, 유학생 그리고 대부분 종교 종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분들을 이어주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한글학교입니다. 각자 생업을 하면서 일

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인커뮤니티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로 함께하며 가족 같은 행복을 느끼는 곳이 바로 곤명한글학교입니다.

한글학교의 목표는 뿌리 교육입니다.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체성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한글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많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으로 저의 매주 토요일 아침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장 선생님보다 큰 아빠라는 소리를 더 자주 듣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한·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자 한글학교 학생인 한 아이에게 “너의 아빠가 내 동생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는 나를 큰 아빠라고 불러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큰 아빠는 따로 있는데, 그분만이 자신의 큰 아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학생이 “진짜로 큰 아빠라고 안부를 거야? 그럼 내가 교장 선생님을 큰 아빠라고 부른다.” 그때부터 전 그 학생의 큰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저를 교장 선

생님 대신 큰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큰 아빠가 되고 있습니다. 큰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등을 쓰다듬어 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저의 일상의 계획은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장을 갔다가도 토요일 전에는 돌아옵니다.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한글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외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놀이 체육대회와 역사문화 퀴즈대회입니다. 전통놀이 체육대회는 한국의 운동회 같은 것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전통놀이로만 진행되는 운동회로 학생들이 일 년 중 가장 기다리는 행사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역사문화퀴즈대회는 역사 특강을 통해 꼭 알아야 할 한국 역사를 교육한 후 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퀴즈대회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집중교육을 받아야만 본선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한국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며 한국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최근 곤명한글학교의 학생 구성이 순수 한인 가정의 자녀에서 다문화가정학생이 증가하는 등 세대를 거듭하며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 같은 소속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재미있게 배움으로써 이를 통한 추억 만들고 행복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해주는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의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차세대를 위한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교사들의 열정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해져 학교는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처음 재중동포 차세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워진 한글학교가 이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행복을 안겨주는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복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특별활동 (그림 그리기)



▲ 특별활동 (역사 배우기)



▲ 곤명한글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



거세지는 인도 내 한국어 공부 열풍... 2분 만에 수강 신청 마감

최근 한류 바람이 거세지는 인도에서 한국어 공부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 주인도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약 600여 명의 올해 1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등록이 개시 2분 만에 마감됐다.

인도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좀처럼 한국 콘텐츠가 진입하지 못해 '한류 불모지'로 불렸으나,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접속이 늘어나면서 인도인의 관심이 K팝은 물론 K드라마, 한국어 공부 등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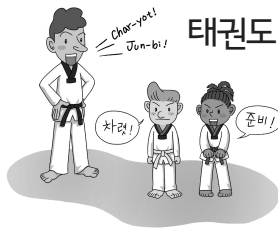
2019년 10월~2020년 2월 사이에 11% 늘어나는데 그쳤던 인도 내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56% 폭증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인도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했다.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시범 수업 도입 학교 수도 2015년 2개에서 현재 20여 개로 늘었다.

[기사 출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2021/02/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94400077?section=search>



▲ 주인도한국문화원 주관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화면 (주인도한국문화원 제공)



바티칸 신학교서 태권도 수업… 승급심사도 받은 예비 사제들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 ‘예비 사제’들이 태권도 수업을 받는다. 최근에는 승급 심사도 진행됐다. 지난 2월 15일 세계태권도연맹(WT)에 따르면, 바티칸 영내에 있는 ‘성비오 10세 소(小) 신학교’는 이탈리아태권도협회와 협약을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다.

바티칸 신학교에 태권도 수업이 개설된 것은 처음이다. 이탈리아협회에서 파견한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 챔피언 출신의 레오나르도 바실레 코치가 1주에 세 번씩 13~17세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한다.

WT는 바티칸과 교류를 이어왔다. 조정원 WT 총재는 2017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태권도 명예 10단증과 도복, 띠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WT 시범단이 교황청의 초청을 받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열린 수요 일반 알현 때 역사적인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1/02/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135400007?section=search>



▲ 태권도 승급 심사를 받은 바티칸 신학교 학생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ICKC,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사장 위호인)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세계태권도연맹(WT) 대회의실에서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0 GCS(밝은사회클럽) 국제대회'에서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ICKC를 대표하여 조정원 GCS클럽 국제본부 및 ICKC 총재가 스리랑카태권도협회 이기수 기술의장에게 화상으로 'GCS발전기금'패를 전달했다.



▲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ICKC 조정원 총재

GCS클럽 국제본부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 한궁 세트 8개(약 300만원)를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스리랑카태권도협회는 WT와 아시아발전재단(ADF) 지원으로 2019-2020년에 이어 '2020-2021 WT-ADF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리랑카 4개 도시 소재 전쟁 고아 및 결손 가정 아이들 총 120여 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GCS클럽 국제본부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WT, ICKC 그리고 ADF와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ICKC의 GCS 발전기금 전달은 지난 2018 캄보디아태권도협회, 2019년 네팔태권도협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 강석재 ICKC 이사, 2020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수상

지난 2020년 12월 10일, ICKC 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WT) 전문위원인 강석재 이사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 '2020 대한민국 시민인권상' 시민사회부문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시민인권상은 비정부기구인 시민인권연맹(총재 오노균)에서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지난 2015년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석재 이사는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 및 태권도박애재단 세계태권도연맹 책임자 등의 직분으로 네팔, 캄보디아, 시리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안녕과 세계평화증진에 힘써 왔고, 특히 아시아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소외 계층 어린이 인권신장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지면을 빌려 강석재 이사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시민사회부문



강석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사무총장)

<공적요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 등의 직분으로 네팔, 캄보디아, 시리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안녕과 세계평화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특히 아시아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소외 계층 어린이 인권신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종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를 손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및 다문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공익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슬로건 Slogan

Great Asia!
다시 아시아로!



비전 Vis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미션 Mission

교류와 협력
나눔과 상생



아시아발전재단 주요사업

교류협력 문화교류캠프, 학술활동 지원, 한민족청년캠프 등

인재양성 아시아·국내·동포 장학사업, 이중언어교실 지원 등

공익문화 해외 태권도·한글 보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등

